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17권 2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Vol. 17 No.2 (2017) pp.1-19
http://dx.doi.org/10.18652/2017.17.2.1

페르소나 발현 유형에 따른 패션스타일 연출에 대한 연구

김 종 선 · 하 지 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요 약

페르소나는 개인이 속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다중 정체성의 외적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패션스타일 연출을 통해 다양하게 발현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을 통해 발현되는 페르소나의 형성 원인과 발현 유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20~30대 성인기 여성 12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패션을 통해 발현되는 페르소나의 형성 원인은 개인적 특성, 사회 구조적 요구,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적 특성은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데 작용한 개인의 성격, 가치관, 욕구이며, 사회 구조적 요구는 집단에서 개인에게 요구하는 규범, 역할 기대, 상황 적합성과 관련하여 작용하고 있는 외적인 요인들로 확인되었다.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은 인간관계의 의식, 집단 분위기, 집단 내 개인의 선택, 사회적 요구에 대한 지연 대응으로 개인과 사회구조 간 절충과 협의가 이루어져 페르소나가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패션을 통해 발현되는 페르소나 발현 유형은 개인적 표현형, 사회적 절충형, 이상적 연출형으로 구분되었다. 개인적 표현형은 개인 내부에서 파악하는 자기의식을 드러내는 페르소나 발현 유형으로, 비효율적 소비, 일회적 이벤트성 연출, 평소 하지 않는 스타일의 자유로운 시도를 하는 패션스타일 연출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적 절충형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협과 절충의 과정을 거쳐 선택적으로 발현되는 페르소나 유형으로, 주변 스타일에 맞추거나, 장소에 시간에 따라 스타일 연출을 보류하기도 하였으며, 규범을 지키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패션스타일 연출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정해진 규칙 내에서 유행 스타일을 추가하거나 아이템들의 믹스 앤 매치, 동일한 스타일을 반복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절충안을 연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적 연출형은 이상적 모습을 위해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연출해내는 페르소나 발현 유형으로, 특정 아이템을 선호하거나 이상적 인물의 모방, 불편함을 감수하는 패션스타일 연출 방식을 주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페르소나, 다중 정체성, 패션스타일 연출, 페르소나 형성 원인, 페르소나 발현 유형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교신저자: 하지수, jisooha@snu.ac.kr
접수일: 2017년 5월 24일, 수정논문접수일: 2017년 6월 7일, 게재확정일: 2017년 6월 16일

Ⅰ. 서 론

Giddens(1991/2001)는 후기 현대의 삶은 극도로 다원화되어있으며 개인에게는 복수의 정체성이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보았다. 탈 전통적 질서, 생활 체계의 다원화, 권위의 부재, TV, 인터넷을 통한 매개된 경험들이 후기 현대의 특성이며, 이러한 경험들은 개인의 생활 체계를 극도로 다원화시키며 개인 정체성의 복수화를 가져온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현대인의 다중적 정체성으로 인해 실제 개인의 삶 속에서 다양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어떤 정체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페르소나(persona)는 심리학자 칼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이 개인의 인격과 행동을 형상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본 몇 가지 원형 중 하나로, 개인이 외부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타협해서 만들어낸 '적응 원형' 또는 '외적 인격'으로 설명하고 있다(Lee, 2011). 연극에서 맡은 역할을 표현하기 위한 가면을 뜻하는 말이었던 페르소나의 어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신분, 지위나 태도와 같은 사회적 역할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Jung, 2008).

이러한 페르소나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인지되는 나에 대한 생각이나 의식인 정체성(Park, 1998)의 외적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패션은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다중적 정체성의 외적 발현인 페르소나 또한 패션으로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라르스 스벤젠(Lars Svendsen)은 패션은 자신의 개인성, 취향의 추구라는 개인적 차원과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체제 순응적 차원의 관계를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은 패션을 특정한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율과 독립성을 추구하는 개인적 정체성이 긴장적으로 결합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Svendsen, 2004/2013). 페르소나는 개인적 욕구나 집단에서 요구하는 행동양식 간의 타협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는 패션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순응이라는 두 가지 긴장된 관계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개인과 사회 구조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도 형성됨을 알 수 있다(Kim & Ha, 2017).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적 요구와 가치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형성하고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페르소나를 패션을 통해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판단된다.

패션디자인 분야의 페르소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페르소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마스크와 베일 디자인의 형태와 경향에 대해 고찰하거나(Park, 2008), 가상공간에서의 페르소나 특성이 반영된 패션컬렉션 디자인을 분석(Kim, 2013)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제적 개인의 삶에서 패션을 통해 표현되는 페르소나에 대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다중적 복식 행동을 자신의 페르소나를 패션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외부 세계에 표현하는 방식인 페르소나가 실제 개인의 삶에서 패션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적 고찰을 통해 페르소나와 정체성의 관계를 밝히고 이를 통해 패션을 통해 발현되는 페르소나 연구의 이론적 틀을 마련한다. 둘째, 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심층인터뷰에 나타난 패션을 통해 발현되는 페르소나 형성 원인을 개인, 사회구조,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셋째, 페르소나 형성 원인과 패션스타일 연출 방식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페르소나 발

현 유형을 구분하고, 페르소나 발현 유형과 패션 스타일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패션을 통해 발현되는 페르소나의 현대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체성의 개념과 특성

에릭 홈부르거 에릭슨(Erik Homburger Erikson)은 정체성이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나 스스로 나라고 하는 존재양식'과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존재양식'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정체성이란 개인의 핵심이며 동시에 그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 문화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며 개인적 정체성과 심리 사회적 정체성으로 구분하여 정의 내렸다(Park, 1998). Merolla et al.(2012)도 정체성을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개인적 정체성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적 그룹 내 일원으로서의 자아정체감을 사회적 정체성으로 정의 내리며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다중적 정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수잔 카이저(Susan Kaiser)는 자아는 가장 추상적이고 총괄적인 것으로, 정체성은 자아를 구성하는 하위개념으로 각각을 구분하였다. 특히 정체성은 맥락을 통해서 자아를 지각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관계와 상황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즉, 사회화 과정에서 구축되고 결정되는 상황 속에서의 자아로 정체성을 설명하였다(Hwang & Park, 1997). 카이저가 구분한 자아와 정체성의 개념은 에릭슨과 데이비드 메롤라(David Merolla) 외의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구분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카이저가 말한 추상적이고 총괄적 개념으로서의 자아는 개인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의미하는 개인적 정체성으로, 사회적 관계와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구축되는 정체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존재양식인 사회적 정체성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체성을 개인의 내적 측면과 사회적 상호 맥락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보는 관점은 Gee (2000)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의미로 정체성 개념을 주장하였는데, 사람들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정체성은 상호작용을 통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어떤 맥락에서건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동일하게 드러나는 핵심 정체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는데(Kang et al., 2015), 이 핵심 정체성은 카이저와 에릭슨, 메롤라 외가 설명한 개인의 연속적인 동질감에 대한 의식인 개인적 정체성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는 핵심 정체성과 함께 네 가지 정체성 영역(본성적, 제도적, 담화적, 친화적 정체성)을 제시하며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다고 보았다(Gee, 2000).

이렇듯 복합적이고 다중적이며, 사회화 과정에서 구축되고 결정되는 정체성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구조에 의해 규정지어지기도 한다. 또한 정체성은 개인 혹은 구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성찰적 능력을 가진 개인이 구조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역동적으로 형성 및 재형성의 과정을 경험한다(Nam,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찰적 행위자로서 개인들이 구조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다중적 정체성 중 어떤 정체성을 선택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가를 페르소나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페르소나와 정체성

페르소나의 어원은 그리스 배우들이 연극에서

맡은 역할을 표현하기 위해 썼던 가면에서 비롯된 것으로(Jung, 2008), 심리학자 융은 개인의 인격과 행동을 형상화하는 원형 중 외부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적응 원형' 또는 '외적 인격'으로 정의하였다(Lee, 2011). 직업이나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규범이자 행동양식으로서의 페르소나는(Park & Sim, 2006) 겉으로 드러나는 개인의 공적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Fawkes, 2015).

융은 페르소나를 개인과 사회의 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는데, 가장 표면에 드러나는 자아 혹은 외적 인격이라는 측면과 집단이 요구하는 도리, 본분, 역할, 사회적 의무에 의해 요구되는 규범과 행동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로 드러나는 페르소나는 이러한 개인적 욕구와 집단정신 양 측면에 모두 고려되어 나타나지만 대체로 개인적인 것 보다는 집단적인 것이 더 많이 개입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Lee, 2011).

또한 모든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페르소나만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페르소나를 사용하며, 상황과 요구된 역할에 따라 대체로 다른 페르소나를 드러내면서 적응한다. 개인에게 나타나는 페르소나는 다양하며 수없이 존재할 수 있다(Kwon & Kim, 2010). 한 개인에게 있어 어떤 시점에 어느 페르소나가 활동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과 상황, 역할에 따라 달라지며 그 특성에 따라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 습관적인 개인의 용모 및 자세, 의복, 얼굴 표정, 머리 스타일 등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Seo, 2009).

이러한 페르소나의 특성은 에릭슨이 말한 사회와의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자각되고 평가되는 상호적인 정체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에릭슨은 '~로서의 자아'는 마치 자기가 그 사람 '인 척' 행동하는 동일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개인은 복수의 '~로서의 자아'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Park, 1993). 개인은 다양한 역할에서 비롯된 다중적 정체성을 다양한 페르소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체성이 페르소나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역할에 맞춰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내보일 것인가에 대한 성찰적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엇이 개인과 사회의 긴장을 줄이며 적응에 유리한 것인가를 판단하여 선택적으로 페르소나를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패션은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이 언급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보이도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복, 화장품, 액세서리(Kang, 1995) 등의 정체성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패션은 다중적 페르소나를 연출하는 데 있어 말투나 행동, 표정보다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요소이며,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자신의 페르소나의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다중적 정체성의 표현인 페르소나를 패션을 통해 연출하는 특정 집단을 연구의 사례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목적 표집에 의해 사전인터뷰를 통해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패션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어떤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다르게 입는 것 같아요'와 같은 대답을 하는지, 각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를 의도적으로 고려하였다. 직업이나 전공, 결혼 여부나 거주지 등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체성 구분 기준을 임의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으며 다중적 페르소나를 패션스타일을 통해 연출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0~30대 성인기 여성 중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패션스타일을 연출한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가 단순

Table 1. 연구 참여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이름	연령	직업	결혼 여부	거주지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페르소나 발현 상황
A	30	행정직	미혼	서울	대학원/교회/여행
B	28	대학원생	미혼	서울	학교/가족
C	32	회계사	기혼	서울	회사/평소
D	31	회계사	미혼	서울	공식적/비공식적
E	33	시간강사	미혼	서울	구속/자유
F	33	공무원	기혼	서울	외면/내부
G	34	회사원	미혼	서울	회사/소셜라이프/여행
H	37	시간강사	미혼	서울	자연인/사교인/학교
I	33	인턴	미혼	뉴욕	패션이벤트/회사/친구
J	25	취업준비생	미혼	서울	교회/남자친구/생일파티
K	28	취업준비생	미혼	서울	중요한모임/아나운서준비
L	34	교수	기혼	경기도	강의/교수회의/남편

한 TPO에 따른 구분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이고자 했던 의도가 확인된 12명을 선정하여 2015년 12월에서 2016년 3월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청각자료의 수집, 직접관찰,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는 패션스타일의 변화를 통해 페르소나를 표현하게 된 이유와 스타일 변경 사례, 자신의 페르소나에 대한 주관적 만족이나 사회적 평가 등에 대한 경험, 의복 구매와 보관 시 차이점, 표현 빈도와 선호도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을 준비한 후 인터뷰 진행 중 파악되는 연구대상자들의 개별적 특성과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는 반구조화 된 문항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사항은 <Table 1>과 같다.

다양한 정보원을 사용하기 위해 시청각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직접관찰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페르소나가 발현된다고 구분한 특정 상황이나 맥락의 의미를 존중하고자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에 따라 제시한 범주를 연구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각각의 상황에서 패션스타일을 다르게 연출하며 페르소나를 표현하는지에 대해 연구 참여자의 설명만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가 밝힌 특정 상황과 패션스타일 연출에 대한 사진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참고하였다. 인터뷰 전후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집단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공적인 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상태나 조직의 분위기, 연구 참여자의 스타일, 말과 행동 들을 관찰하였다. 인터뷰는 1:1로 진행되었으며 최대한 연구 참여자가 밝힌 특정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회사나 학교, 집, 강의실, 커피숍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각 연구 참여자 별로 2회에서 4회에 걸쳐 1회 인터뷰 시 1시간~5시간가량 소요되었다.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거나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전화와 이메일로 인터뷰를 보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인간 대상 연구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승인번호 IRB No. 1512/002-003)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과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았으며, 인터뷰 시작 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자용 설

명서 및 동의서를 제시하여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되었다.

연구 자료의 분석은 질적 연구 자료의 분석 방법인 지속적 비교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개방 코딩은 일련의 반복되는 내용이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코드를 부여하여 자료들을 범주화하는 것으로, 인터뷰 자료를 줄 단위, 혹은 단어 단위로 분석하여 개념들을 추출해내고 이들을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개념적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하였다(Strauss & Corbin, 1998/2001).

Ⅳ. 연구결과

1. 페르소나 형성 원인

연구 참여자들이 밝힌 페르소나를 형성하게 된 원인을 개인적 특성과 사회 구조적 요구,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여 범주화 하였다. 범주들 사이의 관계를 개인의 행위와 사회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둘이 상호적으로 규정하고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의 관점(Jang & Choi, 2005)에서 재해석하고,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재정의 내리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범주를 명명화하는 과정에서는 Yu and Kim(2013)과 Lee(2010), Lee and Lim(1998)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2>와 같다.

1) 개인적 특성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페르소나 형성 원인 중 개인적 특성은 성격, 가치관, 개인적

Table 2. 페르소나 형성 원인.

유형	범주	하위범주
개인적 특성	성격	성격
	가치관	가치관
	개인적 욕구	보완 추구
		자신감 추구
		재미 추구
		기분전환 추구
사회 구조적 요구	집단적 요구	1차 집단의 압박
		2차 집단의 규범
	역할 기대	역할 기대
	상황 적합성	상황 적합성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인간관계의 의식	주변 평가 의식
		타인의 시선 의식
	집단 분위기	구성원의 외모
		집단의 성격
		집단 내 경쟁
	집단 내 개인의 선택	동조 욕구
		개성 추구
	사회적 요구에 지연 대응	사회적 위치로부터의 벗어남
		지역적 범주·요구로부터의 일탈
		연령에 따른 압박으로부터의 일탈

욕구로 확인되었다. 이는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데 작용한 개인의 경험이나 가치관, 욕구, 감정 등 개인의 고유한 심리구조에서 비롯된 개인 내적 차원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페르소나는 개인과 사회구조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개인적 특성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개인의 내면 의식 속에서 자율적인 형성되기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개인적 특성은 제도적, 관례적으로 작용하는 사회 구조적 요구나 개인과 사회가 상호작용하는 요인들에 비해, 개인의 특수한 상황과 경험을 통해 내부에서 형성되거나, 타인이 관여하지 않아도 추구하는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좀 여성스러움도 갖고 있으면서 우울하지 않고, 자존심도 제가 센 편이라며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관여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공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G, 회사)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왔을 때 그게 좋아 보이는 건 맞는데 내가 저 모습은 되고 싶지 않다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고 이미지겠죠. 저는 이런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대학원 생활할 때는" (A, 대학원)

"오히려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입었을 때 뭔가 더 주눅 드는 거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어떤 이미지로 입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걸치고 나가면 주눅 드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것을 입는 게 덜 주눅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자신감이나 기분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I, 친구)

2) 사회 구조적 요구

페르소나를 형성하게 된 사회 구조적 요구는 집단적 요구, 역할 기대, 상황 적합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들은 페르소나를 연출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으로, 개인에게 존재하는 사회구조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 구분된다. 개인이 속한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과 역할과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이상적 이미지 등과 관련한 것들로, 개인의 자율적 선택보다는 집단 내에서 제도적, 관례적으로 작용하는 사회 구조적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페르소나 형성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규칙은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완전 정장, 여자들은 조금 안 지키기는 해요. 전체 메일이 오거든요 아니면 붙여 놔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신입사원 교육할 때도 옷 같은 것들도 지침이 있고" (C, 회사)

"주로 민원인을 만날 때는 저런 공무원은 성실한 사람이다. 아는 게 많고 설명을 잘 해준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일반 민원인이 아니라 사고나 이런 게 많은 민원인, 부정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 해결하러 갈 때, 회사에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무리들을 만나러 갈 때 강하게 너를 눌러버리겠다. 고압적으로 나는 너의 윗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F, 외면)

"1차적으로 방송국마다 다르게 하고 2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떤 아나운서를 필요로 할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난 어떠니까 난 이렇게 보여야겠다. 스포츠 아나운서를 하는 데 진짜 처음으로 파인 옷까지는 자신이 없어서 시스루 입고 메이크업도 아이라인 세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K, 아나운서준비)

3)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은 개인과 사회구조 간 절충과 협의를 통해 페르소나를 형성하게 되는 원인으로, 단순히 사회의 요구를 개인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분위기나 집단 속에서 자신의 역할, 위치에 대한 개인의 성찰을 통해 페르소나를 결정하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행위와 사회 구조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규정하고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구조화 이론에서는 개인의 성찰성을 강조한다. 즉 개인은 매일 일어나는 행동의 흐름에 따라 자신과 구조를 성찰적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반복되는 사회적 관행을 수행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Giddens, 1991/2001).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은 선택적으로 페르소나를 통해 표현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페르소나는 개인과 집단 모두를 고려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은 페르소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은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 구조적 요구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특히 동조 욕구나 개성 추구와 같은 개인의 욕구와 관련된 요인들은 개인적 특성으로 보일 수 도 있지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선택적으로 형성되는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분류하였다. 동조나 개성추구는 집단 내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통한 개인의 선택으로,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 구조에 의한 일방적 요구가 아닌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페르소나를 만들게 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원인을 범주화 한 결과, 인간관계의 의식, 집단 분위기, 집단 내 개인의 선택, 사회적 요구에 지연 대응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내가 조금 더 남들의 시선에 제약적인 날, 남들의 시선이 의식되는 날 이런 걸 더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E, 구속)

"여기가 일반 직장하고 똑같아요. 그냥 회사인 거예요. 패션 하우스가 아니라. 너무 다들 직장인이에요. 일반 회사처럼 그런 느낌. 디자인팀 혹인도 카고팬츠에 금목걸이 정도라 회사 내에서는 튀는 걸 시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첫 날 옷을 되게 화려하게 입고 갔을 때 회사가 덥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선들이 느껴져서 땀이 흘렀던 것 같아요." (I, 회사)

"한국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잖아요. 결코 한 번도 한국에서 입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도대체 이런 걸 왜 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옷들인데 그걸 입고 나가면 큰일 나니까 결코 입지 못해요. 그래도 언젠가는 입어. 한 번밖에 안 입어도 사는 거예요." (A, 여행)

이와 같이 페르소나는 개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성격, 가치관, 욕구와 같은 개인적 특성이 반영되기도 하고 집단에서 개인에게 요구하는 규범이나 역할 기대 등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구에 순응하여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페르소나는 사회적 적응을 위해 만들어낸 것으로, 특히 개인의 욕구와 사회의 요구 사이의 적절한 절충을 위한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요인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함으로써 자신의 실제 모습을 표현하는데 제약을 받는 경우 페르소나를 만들어 내거나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의 외모와 집단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페르소나를 수정하여 대응하기도 한다. 또 개인에게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압박에 대해 페르소나 표현을 지연시킴으로써 대응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서 자신의 역할, 위치에 대한 개인의 성찰을 통해 자신의 페르소나를 결정한 것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협과 절충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내고 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서 승인을 받은 이상적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페르소나의 중요한 역할임이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페르소나 발현 유형

페르소나와 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결과, 페르소나는 정체성의 외적 표현, 발현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정체성에 따라 다양한 페르소나가 존재한다. 또한 모든 정체성이 페르소나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이 개인과 사회의 긴장을 줄이고, 사회 적응에 유리한가를 판단하는 성찰적 과정을 통해 선택적으로 페르소나를 표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패션은 페르소나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패션을 통해 발현되는 페르소나가 형성되는 다양한 원인과 패션스타일 연출 방식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각각의 페르소나를 표현하는 패션스타일 연출 방식을 분석한 결과 페르소나 발현 유형은 개인적 표현형, 사회적 절충형, 이상적 연출형으로 구분되었다. 각각의 페르소나 발현 유형에는 각기 다른 개인적 특성, 사회 구조적 요구,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따른 페르소나 형성 원인이 존재하였다. 패션스타일 연출 방식의 차이점들을 분석하여 정리한 페르소나 발현 유형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표현형

개인적 표현형은 개인 내부에서 파악하는 자기의식을 외부로 그대로 드러내는 페르소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려가 적은 페르소나 발현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페르소나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고려보다는 자신이 가진 페르소나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발현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A의 여행이라는 상황에서 발현되는 페르소나는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거나 이상적 모습이 존재했던 대학원이나 교회에 비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쉬는 걸 좋아해요”, “화려한 걸 제가 좋아해요”와 같이 원래 이런 걸 좋아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개인적 표현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페르소나가 형성된 데에는 “꼭 여행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학교와는 다르게 기분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매일 한다고 하면 재미가 없었을 텐데”, “밤마다 다이닝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이것저것 바꿔 입고, 씻고 드레스 입고 나가고 이런 게 드라마틱한 것 같고”와 같이 재미 추구, 기분전환 추구를 충족시키는 개인적 특성이 가장 크게 작용 작용하고 있었다. “여행을 좋아한다기 보다는 지금 내가 루틴 한 삶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학교와 교회와는 다르게 이런 모습”, “학교에서의 전투적인 삶이 아닌”과 같이 단순히 여행에서 주는 즐거움이 아닌, 대학원과 교회,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벗어나는 압박으로부터의 일탈이라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요인이 존재했다. 연구 참여자 A의 여행에서의 패션은 “한국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잖아요”, “학교, 교회와는 다르게 이런 모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와 같이 결코 대학원과 교회에서 입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구두는 꼭 챙겨가요. 학교에서도 절대 안 신고 교회 갈 때도 웬만하면 구두를 신고 가는 일은 없는데 여행갈 때는 구두랑 칵테일 드레스를 꼭 가져가요”, “제가 목걸이 귀걸이 반지 이런 걸 잘 안하거든요. 그런데 액세서리도 열심히 하고”, “빨갛고 화려한 네일도 해요. 화려하고 예쁘고 이런 것들 원래 되게 좋아해요”, “잠깐인거니까 그리고 일탈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돌아가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고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니까 최대한 다 하려고 그런 게 있어요”와 같이 여행에서의 페르소나를 패션을 통해 표현하고 있었다. “진짜 1년에 한번 입는 그런 드레스를 입는 거죠. 딱 붙는 정말 미니 드레스라든지”, “그때 가서 이것저것 이벤트로 즐겁게 하다오는 그런 행위”, “여러 벌 입고 바꾸고 꾸미고 인형놀이 하는 것처럼”과 같이 일회적인 이벤트성 연출 방식과 평소에 하지 않는 스타일을 자유롭게 시도하는 패션스타일 연출방식을 보였다. 이러한 여행에서의 패션을 위해 구매하는 의복들은 “일 년에 몇 번 안 입더라도 꼭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의

복 지출비가 있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지출인 거 잖아요. 엄마가 도대체 이런 걸 왜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옷들인데", "언젠가는 입어 한번밖에 안 입어도 사는 거예요. 그런 옷을"과 같이 매우 비효율적인 소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E는 자유라는 주제에서 페르소나를 형성하게 된 개인적 특성으로는 "원래 본심에 털털한 면도 있긴 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딸이라고 예쁘게 키워서 여성스러운 건 있지만, 딴에는 오빠들하고 동급이 되려고 어려도 세보이려고 하는 기질이", "그냥 내재된 것 같아요"와 같은 성격 요인이 존재했다. 특히 이 페르소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을 때", "흐트러지고 그런 모습들", "정돈되어야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게 다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경향인거죠",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한 가면을 쓸 때의 스타일"이라는 해방감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페르소나는 "나의 여성스러운 게 꼭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저는 좀 그런 면을 감추고 싶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심하고 이런 건 도움이 안 돼요. 털털하고 보이시하게 보여야 사람들하고 더 잘 어울리고"와 같은 이유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의 페르소나를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페르소나를 패션으로 표현하기 위해 "형광색 이런 것들도 사용해보고", "평소에 시도해보지 못했던 과감한 색깔 이런 것들", "스포티하고 언밸런스하고 색감도 화려하고 이상한 아이템들"과 같은 평소에 하지 않은 스타일을 다양하고 자유롭게 시도하는 패션스타일 연출방식을 사용하였다.

위의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에서 나타난 개인적 표현형 페르소나를 형성하게 된 데에는 자신의 성격, 가치관, 재미 추구, 기분전환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주로 작용하였으며, 사회 구조적 요구로 인한 원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적 표현형에 존재하는 페르소나는 개인적 특성이 작용한 자기내면에서 형성된 페르소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 구조적 요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페르소나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기를 원하며, 지역적 범주, 요구로부터의 일탈과 같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원인들이 페르소나를 형성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페르소나는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개인적 표현형에서는 보다 개인의 요구가 많이 관여된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결과로 페르소나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페르소나들은 비효율적 소비, 일회적 이벤트성 연출, 평소 하지 않는 스타일의 자유로운 시도를 하는 패션스타일 연출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사회적 절충형

사회적 절충형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체성을 선택적으로 표현하는 페르소나 발현 유형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요구되는 행동 양식과 태도에 의해 페르소나를 형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타협과 절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로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근거하여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며, 자신에 대해 타인이 가지기를 바라는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 B는 가족이라는 주제에서 발현되는 페르소나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자신의 의지보다는 엄마의 기준에 따른 요구를 수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사회적 절충형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안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런 스타일도 예쁘다고 생각해요. 예쁘장한 언니 같은 느낌", "그런데 몰고 가는 그 분위기가 싫어", "불편한 내 마음"등과 같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모습이고 건강하고 예쁜 여성의 이미지이지만, 스스로는 불편하고 강요에 의해 만들어진 페르소나로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스타일에 대한 취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성격이라는 개인적 특성에 의한 것이며, 주변 친척들의 평가는 부모님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다시 연구 참여자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는 1차 집단의 압박이라는 사회 구조적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은 “굽이 있는 구두를 좋아해 그래야 내가 괜찮아 보인다고, 엄마 기준”, “약간 기장이 있고 되게 보수적인 옷차림을 좋아하거든요” 등과 같은 힐을 신거나 바디 핏 되는 디자인, 꼿꼿한 자세, 검은색 위주의 보수적인 패션스타일을 요구하였고, 연구 참여자는 이러한 스타일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강요되는 상황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의 취향에 맞춰야 하는 1차 집단의 압박에 대해 불편을 감수한 스타일 연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평소에는 가족과 분리되어 있고, 결혼식이나 생일 등 특별한 모임이라는 상황 속에서 가족을 만나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시적인 불편함의 감수라는 절충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G는 회사라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지위에 맞는 페르소나를 만들어야 함을 밝히고 있어 사회적 절충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페르소나를 형성하게 된 사회 구조적 요구에 의한 원인으로는 2차 집단의 규범이 존재했다.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한 요인으로는 직장 복식 규범에서 벗어나는 경우 “너무 자유분방하게 다니는 거 아니야?”라는 상사의 지적을 받기도 하는 등의 주변 평가 의식, 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튀고 싶지 않고 틀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동조 욕구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 G의 회사는 “여기는 항상 팀 전체로 간다던지 고과는 진급대상자들 몰아주기를 한다던지 그러다보니”와 같이 수직적인 구조가 명확했으며, 개인적 능력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는 고과제도가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집단의 성격에도 영향을 받아 “굳이 튀지도 않게 회사생활 길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거다”라고 안정적으로 회사생활을 하고자 하는 페르소나를 형성하게 되었다. 패션스타일은 전체적인 규범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약간의 디자인 포인트만 사용하는 절충안을 모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옷을 구매할 때도 하나 정도는 회사에 맞게 사고 나머지는 자기 스타일에 맞춰 구입한 후 정장처럼 보일 수 있도록 아이템들의 믹스 앤 매치하는 방식을 택해 연출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I가 회사로 구분한 주제의 페르소나가 형성된 원인 중 개인적 특성은 “저한테 직무가 주어졌을 때 일에 대한 집념이 강한”, “제가 통제하고 싶은 성향이 되게 강한 거예요”와 같이 주어진 업무가 있으면 그 하나만 집중해서 끝내고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싶어 하는 자신의 성향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이러한 페르소나는 패션을 통해서도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자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날 저녁에 내일 이렇게 입어야지 이미 다 설정, 셋팅을 하는”이라고 밝힌 것과 같이 매일 자신의 옷을 고심하고 세팅하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한 상태에서 컨트롤하려는 성향이 반영된다고 하였다. 또한 “어쨌든 회사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 분위기에 맞추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평범하게 입고 싶지는 않다라는 의미에서”라고 밝힌 것과 같이 평범하게 입고 싶지 않고 자기의 센스를 보여주기 위한 페르소나를 연출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회사라는 조직에 융화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특성을 잃고 싶지 않은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하우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의 치마를 입고 회사에 출근한 첫 날 자신의 패션스타일이 회사 분위기와 업무에 맞지 않는다는 경험을 하였고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고 포멀한 패션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평범하게 입고 싶지 않다는 개성추구 욕구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전체

스타일은 모노톤으로 튀지 않게 연출하면서도 외투 안에 독특한 컬러나 디자인의 재킷을 매치하거나 포인트를 주는 방식의 절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 참여자 F가 외부로 구분한 주제에서 발현되는 페르소나를 형성하게 된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원인으로는 “주로 회사에서 민원인들을 만날 때는 이런 느낌을 주려고”,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화려하고 있어보이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등과 같이 남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타인의 시선 의식 요인과 업무 중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자 했던 인간관계를 고려한 요인이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인 연구 참여자가 맡은 일반 민원인 응대와 부정수급 조사 업무와 같은 다양한 역할기대라는 사회 구조적 요구에 의한 페르소나 형성 원인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고 성실한 공무원의 이미지, 강압적이고 위계관계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유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스테디한 기본적인 블라우스에 H라인 무채색의 치마를 입어서 티비에 나오는 조사관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게”와 같이 이상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스타일을 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업무가 없는 상황에서도 스타일을 유지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평소에 추구하는 편안한 패션스타일 선택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지만 강하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주말에 활용하는 것으로 스타일 연출을 보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L의 교수회의라는 주제에서 발현되는 페르소나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어울리기 위해 절충안을 만들어내며 적응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회적 절충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페르소나는 “그 분위기를 깨려고는 안하지만 적극적으로 맞춰주지는 않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 자신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개인적 특성도 존재하지만, 옷을 자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비교하는 집단의 분위기, 교수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위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지 않은 동조 욕구와 같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요인으로 인해 절충형의 페르소나를 형성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는 교수회의를 “이게 사회적인 활동 중에 하나니까, 필요한 활동이기는 해”와 같이 정보교환이나 사교활동 등으로 필수적인 사회적 활동이라고 인지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연구에만 집중하고 싶고 칭찬이나 비교를 싫어하는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기 위해, 교수 사회에서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에 대한 타협을 패션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호화로운 모피 이런거 입고 나타나기도 그렇고 너무 학생처럼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 집단에서 허용하면서 나한테 좀 편한 스타일을 하나 찾아서 그것만 주구장창 그 집단에 나갈 때 입으면”이라고 밝힌 것과 같이 모피 코트나 청바지와 같은 극단의 수준이 아닌, 집단 구성원의 수준에 맞춰 중간정도 유지할 수 있는 자신에게 편안한 절충된 스타일을 찾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패션스타일 연출 방식으로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집단 구성원의 하나로서 잘 어울리기 위한 절충된 방식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있었다.

3) 이상적 연출형

이상적 연출형은 자신에 대해 형성된 이상화된 이미지가 표현되는 페르소나로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을 연출하는 페르소나 발현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페르소나의 어원인 가면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자신이 희망하는 이상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패션스타일을 활용하여 페르소나를 연출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며 자신에게 없는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가상의 이미지를 연출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상적 이미

지는 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에 의해 기대되는 것으로, 페르소나를 통해 가상의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 A의 교회에서 발현되는 페르소나에는 교회에서 보여야 하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밝혀 이상적 연출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페르소나가 형성된 개인적 특성으로는 "저는 고신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하고 그런게 많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선교원 교육을 받아왔어서 보수적인 면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라고 밝힌 것과 같이 자신이 가진 종교적 가치관과 어린 시절 교육의 영향이 존재했으며, 사회 구조적 요구로는 어린이반 선생님에 대한 역할 기대가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저희 소그룹의 특징이 점잖게 입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 분위기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맞춰 입는 것 같아요"와 같이 자신이 속한 교회 내 소그룹의 평가를 고려하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짧은 걸 입거나 파인 걸 입는다거나 그런 걸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명품 가방을 들어야 되면 그 브랜드 명이 드러나니가 싫은 거에요. 그래서 거꾸로 메면" 등과 같이 특히 특정 아이템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패션스타일을 연출하고 있었는데, 명품 가방을 착용하지 않거나 후드티, 민소매, 짧은 치마와 같은 단정하지 않고 노출이 많은 패션스타일은 사용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 K의 아나운서 준비라는 주제에서 발현되는 페르소나는 "현재 아나운서는 이런 모습을 원하니까 난 이렇게 보여야겠다"거나 "나와는 전혀 다른 곳을 지원했으면 그래도 일단 합격해야 하니까 완전 다르게"와 같이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상적 연출형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페르소나는 자신감을 추구하는 개인적 특성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아나운서에 따른 역할 기대라는 사회 구조적 요구가 존재했다. 또한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뽑힐까, 어떤 점을 차별화를 줄까 계속 생각하는데 복식에도 반영되는 것"과 같이 경쟁자들 속에서 선택되어야 하는 집단 내 경쟁이라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원인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페르소나를 패션으로 표현하기 위해 "저는 원래 파인 옷도 별로 안입는데 진짜 처음으로 시스루에다가 메이크업 자체도 되게 쎄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와 같이 시험에 응시한 방송국의 분위기와 아나운서의 종류에 따라 이상적 인물의 패션스타일을 모방하는 연출을 하였으며, 스포츠 아나운서라는 이상적 기준에 맞춰 노출이 있는 스타일과 강한 헤어메이크업을 하는 등 특정 아이템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 I가 패션이벤트라고 분류한 주제에서 발현되는 페르소나는 자신감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개인적 특성과 "이런 이벤트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대우를 받고 싶다", "조금 튀고 싶어서"와 같이 패션이벤트에 참석한 사람들 속에서 가장 눈에 띄고 핵심인물이 되고 싶은 집단 내 경쟁이라는 개인과 사회구조의 상호작용 요인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정규적인 미술이나 패션 공부를 받지 않았지만"이라고 밝힌 패션 공부를 하지 않은 비전공자라는 개인적 경험으로 인해 더욱 패션스타일을 통해 화려하고 주목받는 모습을 연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자신에게 없는 모습을 더욱 과장되게 보이고 싶어 하는, 부재 이미지 표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안나 윈투어(Anna Wintour)와 같이 패션이벤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상적인 인물처럼 보이기 위한 패션스타일을 연출했으며, "저만의 시각이 있고 저만의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등과 같이 패션스타일을 자기 방식대로 표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화려한

컬러와 믹스 앤 매치를 다양하게 시도하는 패션스타일 연출 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J가 생일파티로 구분한 주제에서 발현되는 페르소나는 자신감을 추구하는 개인적 특성과 상황 적합성이라는 사회 구조적 요구에 인해 형성되었다. 특히 “여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거야”와 같이 주변 평가를 의식하고 집단 내 경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원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제일 빛나는 별, 내가 최고이고 싶은”과 같이 자신이 속한 그룹 내에서 가장 튀고 제일 예쁜 모습이길 원했는데 특히 패션에 있어서의 경쟁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클럽이나 가라오케와 같은 장소에서 표현되는 페르소나이기 때문에 섹시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어 했으며, 설현이라는 이상적 인물을 모방하였다. 또한 생일파티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남자들의 평가보다는 여자 친구들 사이에서의 경쟁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섹시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추위나 높은 굽의 힐로 인한 불편함도 감수하는 패션스타일 연출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애들이 항상 같은 크루다 보니까 항상 겹쳐, 애들이 갈 때마다. 그래서 옷을 새로운 걸 사서 입고 가게 되고 특히 생일 파티때 항상 새로운 옷을 사게 돼”와 같이 같은 그룹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돋보이기 위해 새로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이를 위해 매번 쇼핑을 하고 같은 섹시함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옷을 구매하였다. 또한 자신감을 위해 보여주기 용품으로 명품 가방이라는 특정 아이템을 선호하는 패션스타일 연출방식도 활용하고 있었다.

위의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에서 나타난 이상적 연출형 페르소나가 형성된 개인적 특성으로는 보완 추구, 자신감 추구가 두드러졌으며, 역할 기대와 상황 적합성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구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집단 내 경쟁, 사회적 위치로부터의 벗어남, 연령에 따른 압박으로부터의 일탈이라는 개인과 사회구조의 상호작용 원인도 존재했다. 페르소나에 표현되기를 바라는 이상적 이미지가 나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패션을 통해 표현되기를 바랐으며, 여기에는 보완 추구와 집단 내 경쟁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특정 아이템의 제거 또는 선호, 이상적 인물 모방, 일반적 기대, 규칙에서 벗어나는 스타일, 이상적 이미지 연출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패션스타일 연출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 구조적 요구인 다양한 역할 기대로 인해 이상적 이미지를 패션으로 표현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특정 아이템을 선호하거나 이상적 인물의 모방, 불편함을 감수하는 패션스타일 연출방식을 주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론적 고찰과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페르소나 발현 유형별 특징을 종합해보면 다음 <Figure 1>과 같다.

3. 종합적 논의

페르소나의 형성 원인과 패션스타일 연출 방식에 대한 고찰 결과, 페르소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절충과 연출을 통해 형성된다는 이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이해되어져야 하며, 페르소나의 사회적 적응기능과 이상적 연출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들은 사회적 적응을 위해 패션을 통해 발현되는 페르소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조직에 적응하고 어울림을 추구하기 위해 주변 스타일에 자신의 모습을 맞추거나, 집단의 압박에 의해 장소와 시간에 따라 스타일을 연출을 보류하기도 하며, 2차 집단의 규범을 지키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패션스타일 연출방식을 활용한다. 또한 규칙 내에서 유행 스타일을 추가하거나 패션 아이템의 믹스 앤 매치, 동일 집단 내에서는 일정한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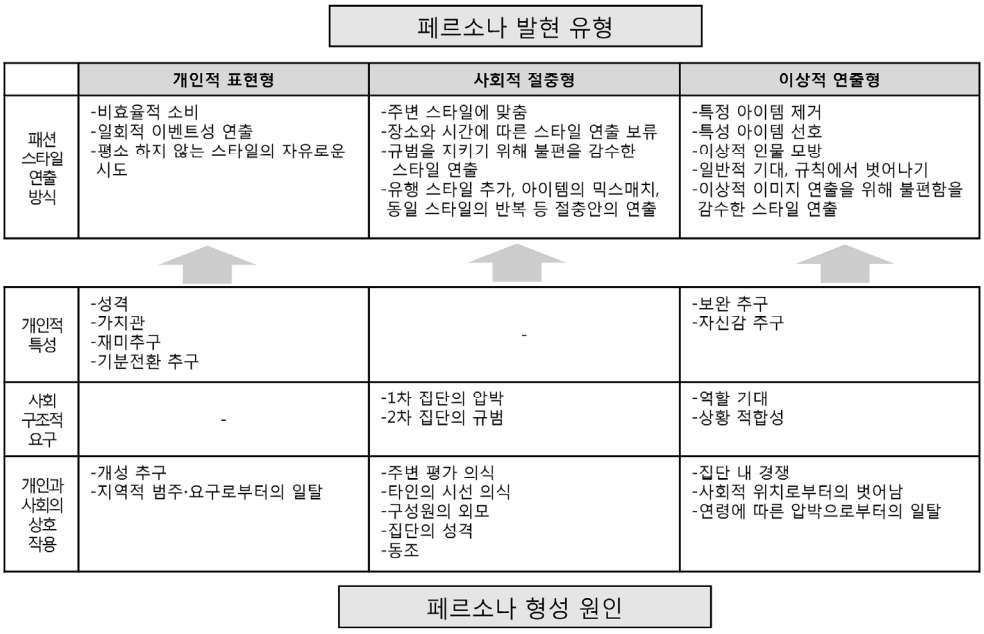

Figure 1. 페르소나 발현 유형별 패션스타일 연출 방식.

타일을 입는 것과 같은 동일 스타일의 반복 등 패션스타일을 통해 절충안을 연출하는 방식은 착용자가 집단의 요구와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상적 연출 기능의 측면에서는 이상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개인 선택에 의해 은폐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특정 패션 아이템을 제거하거나 선호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이상적 인물을 모방하는 패션스타일, 이상적 이미지 연출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패션스타일 연출방식을 통해 이상적 연출 기능의 페르소나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패션스타일 연출을 통해 페르소나를 변경시키고 있었다. 이는 페르소나 발현의 유동적 특성이 확인된 것으로 현재와 과거 모두 동일한 페르소나 형성 원인이 작용하고 있었지만, 각각의 시기에 존재한 구성원의 외모와 집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패션스타일을 연출하여 대응하였다. 이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는 타인의 의복에 대한 평가 방식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페르소나를 표현하는 패션스타일 활용 방식을 유동적으로 변경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패션을 통해 발현되는 페르소나의 유동적 특성은 개인이 속한 사회 구조의 특수한 맥락적 차이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킨 것으로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성찰적 능력을 가진 개인과 구조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결 론

페르소나는 개인의 다중 정체성의 외적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패션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된다. 극도로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직면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페르소나는 매우 다양하며, 이는 실제 개인의 삶 속에서 패션스

타일을 통해 성찰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패션으로 발현되는 페르소나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이 속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정체성의 외적표현을 융의 페르소나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패션을 통해 발현되는 페르소나의 형성 원인과 발현 유형을 밝히고자 하였다.

문헌 연구 결과 페르소나는 자아가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양식으로 개인의 다중적 정체성의 외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체성이 페르소나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이 개인과 사회의 긴장을 줄이고, 사회 적응에 유리한가를 판단하는 성찰적 과정을 통해 선택적으로 페르소나를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패션을 통한 페르소나의 표현은 어떠한 맥락 속에서 개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재구성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패션을 통해 발현되는 페르소나의 형성 원인은 개인적 특성, 사회 구조적 요구,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구분되었으며 패션을 통해 발현되는 페르소나 발현 유형별 페르소나 형성 원인과 패션스타일 연출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표현형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려가 적은, 개인 내부에서 파악하는 자기의식을 드러내는 페르소나 발현 유형으로, 비효율적 소비, 일회적 이벤트성 연출, 평소 하지 않는 스타일의 자유로운 시도를 하는 패션스타일 연출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격, 가치관, 재미 추구, 기분전환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타인의 시선 의식, 개성 추구, 지역적 범주·요구로부터의 일탈이라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페르소나 형성 원인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회적 절충형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협과 절충의 과정을 거쳐 선택적으로 발현되는 페르소나 유형으로, 주변 스타일에 맞추거나, 장소에 시간에 따라 스타일 연출을 보류하기도 하였으며, 규범을 지키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패션스타일 연출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정해진 규칙 내에서 유행 스타일을 추가하거나 아이템들의 믹스 앤 매치, 동일한 스타일을 반복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절충안을 연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페르소나 형성 원인으로는 1차 집단의 압박, 2차 집단의 규범, 역할기대와 같은 사회 구조적 요구가 존재했다.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한 원인으로는 주변의 평가 의식, 타인의 시선 의식, 구성원의 외모, 집단의 성격, 동조를 위해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상적 연출형은 이상적 모습을 위해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연출해내는 페르소나 발현 유형으로, 특정 아이템을 선호하거나 이상적 인물의 모방, 불편함을 감수하는 패션스타일 연출 방식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완 추구, 자신감 추구라는 개인적 특성과 역할기대와 상황 적합성이라는 사회 구조적 요구, 주변 평가 의식, 집단 내 경쟁, 사회적 위치로부터의 벗어남, 연령에 따른 압박으로부터의 일탈이라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원인에 의해 페르소나가 형성되고 있었다.

패션을 통해 발현되는 페르소나는 그 개인이 속한 집단 속에서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의미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실증적 연구를 통해 개개인들의 사례를 고찰해 본 결과 패션을 통해 발현되는 페르소나의 현대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페르소나의 사회적 적응기능과 이상적 연출기능이 강조되고 있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 고찰한 개인들은 자신이 패션을 통해 페르소나를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단순히 사회적 요구에 그대로 순응하기 보다는 개인 특성과의 절충과 타협을 통

해 자발적으로 페르소나를 표현하고 있었다. 조직이나 상황, 복장 규범에서 요구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기도 하였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한 교묘하게 절충된 패션스타일의 활용을 통해 끊임없이 개성을 추구하고 있었다. 또한 패션스타일의 변경을 통해 페르소나를 유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는 개인이 속한 사회구조의 특수한 맥락적 차이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킨 것으로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바람직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개인의 개성을 억압하더라도 사회적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는 암묵적이고 구조적인 제약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을 통해 발현되는 페르소나를 통해 새롭고 창의적인 대응양식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여 변형해간다. Giddens(1991/2001)는 성찰적 개인은 매일 일어나는 행동을 성찰적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관행을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발적 능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현대인은 이러한 성찰적 개인으로서 단순한 사회적 요구에 의한 페르소나가 아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며 선택적으로 개인성을 강조할 수 있는 페르소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이며 그러한 과정에 패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개인과 사회의 긴장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페르소나 표현에 있어 패션은 조절자 역할을 하기도 하며 다중적이고 유동적인 페르소나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패션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한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중적 정체성의 발현으로서의 페르소나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

Fawkes, J. (2015). Performance and persona: Goffman and Jung's approaches to professional identity applied to public relations. *Public Relations Review, 41*(5), 675-680. doi:10.1016/2014.02.011

Gee, J. P. (2000). Identity as an analytic lens for research in education.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25*(-), 99-125. doi:10.3102/0091732x025001099

Giddens, A. (200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Kwon, K. D., Trans.). Seoul: Saemulgyul. (Original work published 1991)

Hwang, H. Y., & Park, C. B. (1997). Perceptions of clothing norms, clothing behavior and their relations to psychological variables of college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31*(-), 165-188.

Jang, W. H., & Choi, M. O. (2005). Structuration theory of Anthony Giddens as applied to the study of innovation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e Korean Journal of Government Studies, 9*(2), 90-106.

Jung, I. S. (2008). *의식과 무의식의 대화: 융의 분석심리학을 중심으로* [Dialogue between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Focused on Jung's analytical psychology]. Paju: Daewangsa.

Kang, E. H., Kim, C. J., Choe, S. U., Noh, T. H., Yoo, J. H., & Kim, H. B. (2015). The chang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4th graders' career aspirations in science and science identiti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35*(5), 841-856. doi: 10.14697/jkase.2015.35.5.0841

Kang, H. W. (1995). *의상사회심리학*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Paju: Gyomoon Publishers.

Kim, J. S., & Ha, J. S. (2017). An analysis of persona manifestation through fashion sty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7*(1), 55-70. doi:10. 18652/2017.17.1.4

Kim, S. J. (2013). Virtual space persona expressed in fashion illustration.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5*(5), 671-681. doi:10.5805/SFTI.2013.15.5.671

Kwon, K. Y., & Kim, K. J. (2010). Study of expression persona in photograph. *The Korean Journal of Art and Media, 9*(1), 20-29.

Lee, B. Y. (2011). *분석심리학 C.G. 융의 인간심성론* [Analytical psychology C. G. Jung's thoughts on mind]. Seoul: Ilchokak.

Lee, M. A. (2010). Comparative study between married and unmarried women on consumption values and clothing benefits: Focusing on working women in their 20's and 3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5), 808-818. doi:10.5850/jksct.2010.34.5.808

Lee, S. H., & Lim, S. J. (1998). A study on benefit segmentation and clothing preference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6(3), 100-110.

Merolla, D. M., Serpe, R. T., Stryker, S., & Schultz, P. W. (2012). Structural precursors to identity processes: The role of proximate social structur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5*(2), 149-172. doi:10.1177/0190272511436352

Nam, M. J. (2015). *The qualitative study on the mechanism of the post-doctral researchers' identity form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Focusing on the post-doctral researchers in Heemang institut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Park, A. C. (1993). *아이덴티티의 세계* [World of identity]. Gyeonggi: Kyoyookbook.

Park, A. C. (1998). Erikson의 '아이덴티티'의 의미에 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concept of 'identity' of Erikson]. *Humanity Studies East and West, 40*(-), 67-86.

Park, J. H. (2008). *A study on specialty of persona item at fashion show*.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Park, S. H., & Sim, H. S. (2006).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phasic persona inventor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2), 231-257.

Seo, D. H. (2009). *Expressive aspects of persona showed in fine ar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Strauss, A., & Corbin, J. (2001). *질적연구 근거이론의 단계*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Shin, K. R., Trans.). Seoul: Hyunmoon.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Svendsen, L. (2013). *Fashion: A philosophy* (Dho, S. Y., Trans.). Seoul: MID.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Yu, J. H., & Kim, M. K. (2013). A study on the clothing selection criteria by pursuit of clothing benefit groups and the preference of clothing color by moodstate.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1*(6), 938-949. doi:10.7741/rjcc.2013.21.6.938

Analysis on Characteristics of Fashion Style Present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Persona Manifestation

Kim, Jong Sun · Ha, Ji Soo+

Lecturer,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ersona may be said that as an external expression of multiple identities formed by interaction with others in a social context to which individual belongs and revealed through fashion in various manners.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persona's formation causes and its manifestation types by fashion and in-depth interview was done for 12 adult women in their 20s~30s. Formation causes of a persona revealed by fashion may be explained as individual characteristics, social-structural demands and individual-social interactions. Manifestation of a persona through fashion style has types of individual expression, social negotiation and ideal presentation. Individual expression type is a personal manifestation identified within individual showing self-awareness. Such personas are revealed through directing a free fashion style rarely used usually along with inefficient consumption and presentation of one-time event. Social negotiation type is the type of a persona revealed selectively under agreement and negotiation in a social relation. Such personas are revealed through adapting to a style around them, reserved their style presentation according to where and when, or used a fashion style presentation method submitting to inconvenience to observe a norm. Besides, it showed that they make use of negotiation through addition of a fashionable style, mix and match of items, and repetition of the same style within fixed rules. Ideal presentation type is the type of a persona revealed to show an image absent in an individual for the ideal image. Such a persona is revealed through preferring certain particular item, imitating an ideal person or using a fashion style presentation to accept inconvenience.

Key words : persona, multiple identity, fashion style presentation, cause of persona formation, type of persona manifestation